

무선 인터넷을 통한 IT 서비스업 활성화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kimst@nia.or.kr

IT제조업에 비해 부진한 IT서비스업

우리나라는 지난 1월 12일 발표된 UN 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드러내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력하여 이룬 값진 결실이며 성과이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한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과 노하우를 민간, 산업 등 우리 사회 각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으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특히, IT산업 부문은 공공부문 정보화의 명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영국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에서 매년 실시하는 IT경쟁력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IT산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역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 Digital Governance in Municipalities Worldwide(2007), National Center For Public productivity, USA (공저), 2008

업 경쟁력이 2007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7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 16위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IT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인 삼성, LG 등이 시장점유율 46.5%를 기록하며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IT서비스업은 시장점유율 1.1%로 IT제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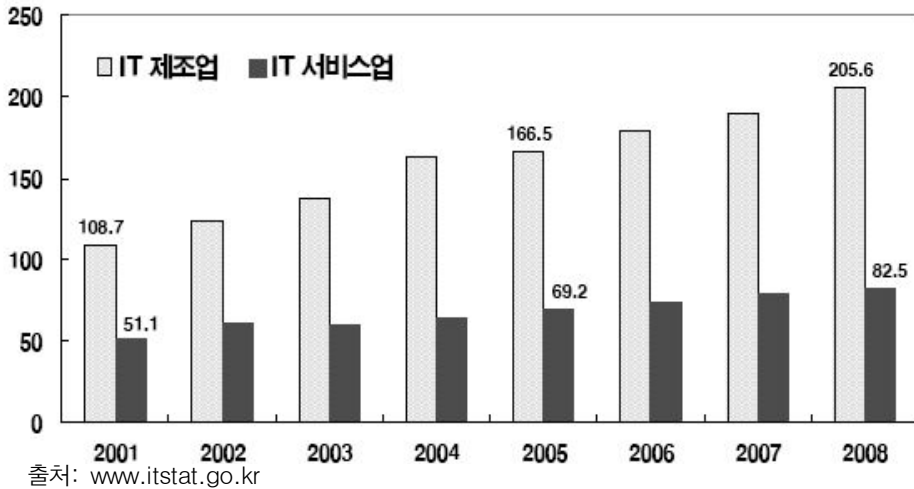
<표 1> 세계 IT 시장 규모 및 한국 기업의 점유율(2007)

	반도체	휴대전화	LCD	IT 서비스
세계시장규모	2,496억 달러	1,200억 달러	320억 달러	7,327억 달러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45.1%	23.0%	46.5%	1.1%

출처 : IDC, 전국경제인연합회(2009.8) 재인용

국내 IT산업의 생산성 추이를 살펴보면 IT제조업과 IT서비스업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IT제조업과 IT서비스업간의 생산규모 차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위: 조원)



[그림 1] IT제조업과 IT서비스업의 생산 추이

IT서비스업은 IT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창출, 고용유발 등 경제적 기여도는 물론 선진적 경제구조로의 전환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IT서비스업의 생산규모가 IT제조업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IT제조업 중심에서 IT서비스업 중심으로 신속한 패러다임 전환은 필수적이다.

IT서비스업 활성화의 주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IT산업을 IT서비스업 중심으로 유도할 대표주자는 단연 모바일 서비스로 보인다. 이미 세계는 애플, 구글 등이 IT산업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볼 때 그러하다. 전자기기, 회선사용료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로 인한 수익보다는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든 것이 판가를 나는 구도로 변해버렸다.

또한 애플, 구글 등이 제공하는 IT 서비스는 그야말로 새로운 모습이다. 예를 들어, ‘라알(Layar)’은 카메라로 주택을 비추면 판매여부, 집주소, 가격, 전화번호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IT서비스다.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던 신기술인 증강현실이 적용되었고, 이동하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업체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2] Layar

GPS를 통해 주차위치까지 찾을 수 있는 ‘어크로스에어(Acrossair)’는 주변의 식당, 은행 등과 같은 지역정보와 파노라미오¹⁾를 이용할 수 있다.

1) 파노라미오(Panoramio) : 위치정보태그 기반의 사진공유 커뮤니티 웹 사이트. 2005년 10월 서비스 시작



[그림 3] Acrossair

그 외에도 쇼핑몰 ‘주가라(Zugara)’ , 아마존 전자책 ‘킨들(Kindle)’ 과 무선에 적합한 ‘트위터(Twitter)’와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 등도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이다. 개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앱 스토어에는 10만개 이상의 IT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사용자들은 어디를 가나 저렴한 비용으로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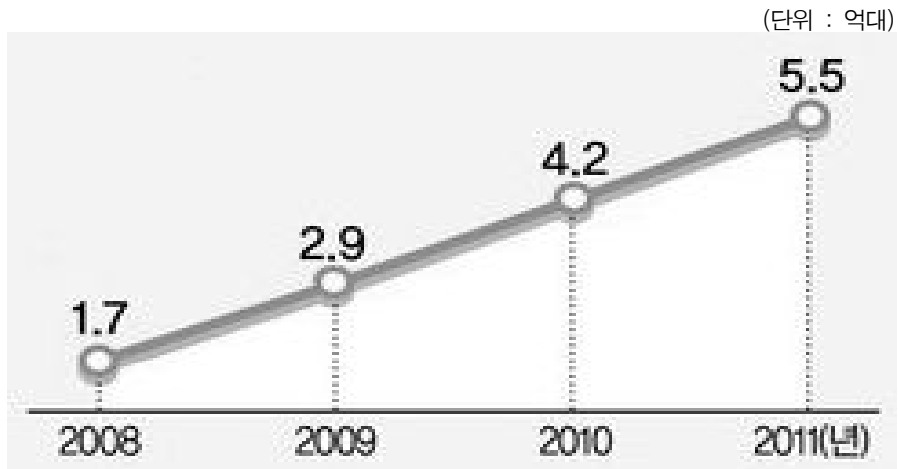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WiFi가 대도시는 물론 중소 도시에도 잘 구축되어 있다. 유료를 비롯하여 정부 등 공공기관, 개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무료 WiFi가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다. 미국 미시간의 랜싱이라는 작은 도시의 WiFi 분포도이다. 초록색이 무료를 의미하며, 커피점, 베이커리점 등 개인 사업자들이 자신의 점포 내에서 WiF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WiFi 분포: 미시간 랜싱

그렇다면 IT강국인 우리나라의 무선 인터넷 환경은 어떠한가? 통신사업자들의 기득권과 통신망이용에 대한 법적규제로 기술역량 및 소비자 욕구가 갖추어져 있고, 시장 성장성까지 파악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미약하다.

<표 2> 스마트폰 성장 전망



출처: 가트너

이렇게 시간이 잠시만 흐르다 보면 우리나라의 무선 인터넷 시장은 왜국의 선도적 기업에게 모두 내어주게 되고 결국 단말기만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IT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터넷 환경 조성

우리나라가 무선 인터넷 시장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경제적 부담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통신 이용료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통신이용료가 절대적으로 비싸기도 하고, 무선인터넷 이용료의 경우, 집으로 들어오는 회선의 용량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도 그 용량 내에서 원하는 수의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보안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망사업자의 기득권 주장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자기땅을 활용한 무료 무선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자기땅을 통한 상용망의 접근 문제 또한 무선랜 서비스의 이용촉진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숙제이다.

셋째, 다양하고 기발한 IT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국민생활에 유익한 공공 콘텐츠를 선별하여 공개함으로써 개인, 민간기업 등 IT서비스 개발자들이 사적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어느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버스’ 서비스와 같은 기발한 서비스들이 발굴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면 관련 벤처들이 자생할 수 있을 것이고 무선 인터넷 시장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경쟁도 해 볼만해 질 것이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여겨졌던 위치정보서비스, 증강현실 등 신기술의 적용이다. 이러한 신기술의 적용은 기존에 제공되던 IT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우리나라 IT서비스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준다. 또,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IT산업 측면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민경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IT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재래시장, 관광, 물류, 음식업 등 친 서민 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많이 찾는 남대문과 같은 재래시장의 상점정보, 판매정보, 길, 가격대 등의 정보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로 구축하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남대문시장 상점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쇼핑, 주변관광, 외식까지 모

두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남대문 시장을 다녀간 외국인도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남대문 시장의 제품을 주문 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판매방식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서울, 경주, 제주 등 주요관광도시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존 산업과의 결합 서비스를 발굴, 시범 적용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SDI**